

# '나' 아닌 '너'의 마음이 되어...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 ⑮ '마음 높이' 맞추기

#### 모범생 이들의 반향

얼마 전까지 P씨는 아들만 생각하면 뿌듯했다. 공부를 잘 하는 아들이 소위 일류대를 가는 것은 정해놓은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아들은 때로는 주말이나 방학에 놀고 싶어 했지만 P씨는 거의 허락한 적이 없다.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만이 최고다" 하면서 오직 공부만 끊임없이 강요했다. 다행히 성격이 유순한 아들은 힘들어 하면서도 고분고분 엄마의 말을 잘 따라와 주었다. 가끔 잠이 부족하여 힘들어 가방을 들고 나서는 아들을 보면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으나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다.

주위의 엄마들이 "얼마나 좋으세요.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 하니 정말 부럽네요"할 때는 기분이 날아갈 듯 행복했다.

누구를 만나도 "우리 아들은 전교 상위권에 들어요"하고 자랑하였다. P씨는 마치 자신이 공부를 잘 하고 인생의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우쭐하고 기뻐다. "우리 아들은 정말 효자다" 하면서 흐뭇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P씨의 가슴을 무너뜨린 일이 일어났다. 학교 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불러도 대답이 없어 방에 들어가며 "여, 지금 몇 신지 아니? 어서 나와라" 라고 야단쳤다.

그때도 아들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P씨가 이불을 걷자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며 "난

죽고 싶어! 학교에 안가!"라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이 애가 내 아들이 맞는지 믿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 순간 아들은 과일 칼로 자해를 했고 어떻게 병원에 데려갔는지 악몽과 같았다.

그 후 아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버렸다.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은 물론 죽고 싶다고 하면서 밥도 거의 먹지 않기 시작했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다가가서 무슨 말이라도 하려 하면 생전 해 본 적이 없는 욕설을 하거나 자해하려 하

#### 전교 상위권 다투는 모범생 아들 부모 공부 강요 반발 자해까지...

#### 뒤늦게 아들 마음 헤아린 어머니 가슴으로 아들의 고통 껴안아...

기 때문에 뇌두는 수밖에 없었다.

P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엄마는 공부밖에 몰라. 엄마한테는 내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나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몰라. 이제 지긋지긋해. 죽고 싶어!"하는 말들이었다.

####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렇게 한 말이 지나자 견딜 수가 없어 스님에게 아들 문제를 털어놓았다. 스님은 "보살님 다

른 생각 말고 한 가지만 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법당에 가서 아들의 마음이 되어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부터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들이 되어 그 마음만 헤아려 보십시오" 라고 하셨다.

법당에서 깊이 마음을 모아 아들의 마음이 되어 보았다. 어린 나이 때부터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하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솟구쳤다.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정말 놀고 싶고 친구들과 장난하고 싶고 더 자고 싶고... 그럴 때 얼마나 아찔했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공부에 지냈었다는 말이 맞았다. 몇 시간을 법당에서 한없이 울었다. 왜 한 번도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가슴이 미어졌다.

#### 내 기준으로 판단에선 안돼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간 P씨는 아들 방으로 들어가 말없이 아들을 안고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해, 미안해. 얼마나 힘들었니"하는 흐느낌 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한참을 묵묵히 있던 아들도 같이 울기 시작했다. 함께 울고 우는 동안 보살님은 마음의 막혔던 부분이 터지면서 아들에 대해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깊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P씨는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입장이 되어 보는 줄 아닌 마음이 부족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기준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고 후시 나의 기준과 잣대로 주위 사람들을 기대하고 평가하거나 나아가 내 생각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눈높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돌 아님 마음의 높이 맞추기가 아닐까.

황수경(동국대 선행과 강사)



## 부처님 감사합니다

### 보고픈 어머니께 (하)

전우경 무안교도소

너무나 많은 죄를 부모님께 범해 해가 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뼈아프게 가슴에 저려옵니다. 저 하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아니 당신께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정이 무엇인지...

즐거워 할 명절이 찾아올 때마다 가슴 한 곳에 대못으로 박힌 못난 자식을 위해 지금도 따뜻한 쌀밥을 따로 담아 두시는 어머니. 언제 울지 모르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실 우리 어머니께 이제야 용서를 빌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용서를 빌니다. 어머니가 찾아오실 때마다 절규하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저의 가슴을 울립니다.

어느 날 눈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작은 창문 틈 사이로 내미시며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야! 네가 기운을 내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 힘을 내거라" 하시며 "네가 있는 한 우리 가족 모두는 죄인이다" 하시며 오열 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은 십 년은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아 너무나 참담한 슬픔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속죄해야 할지 속죄없이 죽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만나기 어렵다는 부처님 말씀을 만나고 제 인생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부처님의 바른 지혜를 배우고 참회하며 두 손 모아 합장하고 고개 숙이며 살아가는 것이 제게 남은 인생을 좀 더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을 더욱 알차게 배우고 익히면서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한 생명 이 다시 태어나게끔 보살펴주시는 것에 깊이 고개 숙여 감사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혹시나 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 노심조사하시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고마운 그분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입담하고 감동하기만 하던 터널의 끝이 지나고 찬란한 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명 속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밝게 웃으시는 어머니의 웃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찬란한 당신의 얼굴이 내 작은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 희망의 얼굴이요, 내 마음의 얼굴입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이 죄 많은 불효자식을 용서

하십시오. 저 때문에 어머니 더 늙으심이 서러워 세월 가길 조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 죄 짓고자 부처님께 귀의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이곳 불교교실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기거한지도 벌써 5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저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법화경>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을 입심으로 염불한 뒤 아침 108배를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밝고 희망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마주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기쁨입니다. 경전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을 목 놓아 부르며 제가 지은 업장을 조금이나마 닦아 내려고 노력합니다. 가슴에 통탄한이 조금씩 부처님의 가피아래 녹아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어머니,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웃으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향집 별빛 내리는 창가에서 제가 있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시며 애를 태우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두 손 모아 발원하옵니다. 시삼삼세에 늘

상주하옵시는 부처님! 부디 제가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아서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도 더러운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깨끗하게 아름다운 자태를 꽃피우는 연꽃처럼 저 자신도 다시는 악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 보다 더 불우한 내 이웃을 도우면서 해 맑은 모습으로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연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의 주위에서 항상 지켜보며 격려하고 이끌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부처님의 가피력이 늘 함께 하시고 저의 이웃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들의 가슴에도 부처님의 자비로우신 보살핌이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의 한 몸이 바쳐져 타오르는 향불처럼 온갖 더러움을 사그라지게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바쳐서 밝은 세상 불국정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발원하며 하루하루를 참회하고 새롭게 거듭나고자 노력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영원히 사랑합니다. (끝)



그림: 문병성

### 불효자식 죄 씻으려 부처님께 귀의 새벽 '법화경' 독송과 108배로 참회...

충청매일 · 육천 대상사 주최 '수용자 호 문학작품' 공모 호 편지 우수상 수상작

### 산행계시편

●수용자 호림원 '아름다운 이별여행을 위한 준비교육' =사회복지법인 수용자 호림원이 제6기 호스피스 수강생을 모집한다. '아름다운 이별여행을 위한 준비교육'으로 진행되는 이번 호스피스 교육은 '호스피스의 개념과 이해'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과 이해' '말기환자의 신체적·심리적·정서적 케어' '감염예방과 안전수칙' '의사소통(화해와 용서) 죽음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 '장례의 실제' '사별가족관리' 등으로 진행된다. 7월 9일 개강하는 제6기 호스피스 교육은 8월 13일까지 수용자 호림원 6층 강 의실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에 열린다. 수강료 5만원, 50명 모집 계획이다. (02)313-5124

●관자재교육원 부처님점안법회=재단법인 정토사 관자재회가 관자재병원 내에 관자재교육원을 건립 했다. 6월 24일 우룡 스님을 초청해 관자재교육원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오전 10시 청원 정토마을 관자재병원에서 열린다. (04)3298-2258

●대흥사 가족과 함께 하는 산사체험=해남 대흥사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마련 했다. 모집인원은 6가족, 30명 내외, 8월 중순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회는 6월 27~30일 열린다. (06)1535-5775

●금산사 어린이 캠프=금제 금산사는 7월 27~29 일 열리는 어린이캠프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10~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열리는 금산사 어린이 캠프는 금산사 홈페이지(sansa.geum sansa.org)에서 접수 신청을 받는다. (010)65 89-0108

●미항사 어린이 한문학당=해남 미항사 어린이 한 문학당이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9일, 8월 8일 2 차례 걸쳐 각각 1주일간 진행되는 어린이한문학당은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모집인원은 50명. (06) 533-3521

## 티베트 명상음악회

티베트에서 불법수행을 원만 성취하신 분의 강력한 가피력과 상서로운 능력이 깃들여 있는 다라니와 음률을 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명상음악을 통해

심신이 편안한 선정 상태로 빠르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청정무위의 경계에 들어가서 번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며 빛나는 선(禪)의 경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가피력으로 심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만날 수 있으며, 마음에 느끼어 깨닫는 (感悟)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일시 : 2007년 6월 23일(토요일) 오후 3시 ~ 5시 30분

장소 : 조계사내 문화예술공연장 (서울 종로구 견지동 27-11) 문의처 : 02)586-6176 / 017-358-8830 / 011-714-8673

### 제 25기

## 불교전문호스피스 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는 내가 죽음에 직면하도록 돕는데 만족을 느끼며, 나의 요구를 이해하는, 민감하고 지각있는 사람에 의해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호스피스 윤리 중에서-

- 일 정 : 2007년 8월 4일(토요일) ~ 2007년 8월 11일(토요일)
- 내 용 : 30개 호스피스 전문과목과 20여명의 최고 강사진, 임상과 이론을 겸한 전문인력양성 집중교육
- 장 소 : 관자재병원 교육원 마하보디센터(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138-1)
- 대 상 : - 스님, 재가 법사 및 포교사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뜻이 있으신 분 - 불교인으로서 삼귀요계를 수지하신 분으로 심신이 돈독하여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 인 원 : 남·여 60명
- 교 육 비 : 39만원(학인스님 20%할인 - 재학증명서 제출)
- 원서접수 : 홈페이지 접수, 전화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접수받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육생 선발은 1차 서류 심사후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원서마감 : 2007년 7월 10일 도착분까지
- 문 의 처 : 정토마을 호스피스 [[법인사무국]]

총학 정원교 미원원 대신리 산17-1 정토마을 TEL 043)298-2258(대) FAX 034)298-1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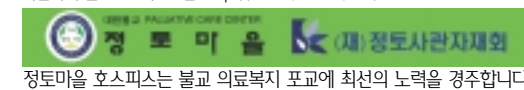
관자재요양병원 사무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138-1 TEL 052)264-1007(대) FAX 052)264-0209

\* 불교전문 호스피스 교육에 각계 스님 및 불자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불교의료복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첨단 시설을 갖춘 관자재병원 교육원 마하보디센터가 새롭게 개원하였습니다.

홈페이지 http://jungtoh.com / 이메일 jungtoh2@jungtoh.com

다음카페 불교호스피스연합 http://cafe.daum.net/BHU



정토마을 호스피스는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경주합니다